

# 사랑의 샘

2009  
여름

통권130호



사회복지법인 이천한나원

한나요양원 · 한나그린힐

홈페이지 : <http://hannawon.or.kr> 이메일 : [echnw@hanmail.net](mailto:echnw@hanmail.net)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장기요양지정기관인

# 한나그린힐 한나요양원 에서

새롭고 즐겁고 편안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2005년 개원, 80명 정원, 현재 54명 입주자 모집 중!

1985년 개원, 100명 정원, 현재 79명 입주자 모집 중!

## ♥ 시설특징

1. 수도권에 위치하고, 시내버스도 운행됩니다.
2. 주위환경과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3.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예배실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격

1.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장기요양 인정서에 1등급, 2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2. 3등급의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3.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노인성 질환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 입주신청 방법

1.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은 시설로 연락 주시면 즉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2. 현재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어르신은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시고, 등급판정을 받아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은 후에 시설에 입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한나그린힐 월 생활비용 (30일 기준, 2009. 5. 1. 현재)

- 1등급(누워서 생활하시는 분) - 본인 부담금 492,000원(비급여 포함)
- 2등급( 체어 타시는 분) - 본인 부담금 471,540원(비급여 포함)
- 3등급(보행기 사용하시는 분) - 본인 부담금 450,180원(비급여 포함)

◆ 한나요양원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무료입니다.

## ♥ 입주문의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474-8(한나그린힐), 474-4(한나요양원)

☎ 한나그린힐 : (031) 631-1911    원장 : 박양조(011-277-1356)

☎ 한나요양원 : (031) 632-1357    원장 : 한동숙(011-9797-4229)

2009년

# 계간 사랑의 샘(여름호)

창간 1986. 2. 1



**원훈 : 서로 사랑하자  
소망을 가지자  
헌신 봉사하자**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가로 인도 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 시키  
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 23 : 1-3)

통 권 : 130호  
발행인 : 정영록  
편집인 : 박양조  
발행일 : 2009. 6. 15

한나요양원	한나그린힐
주 소 : 467-85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474-4	467-85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474-8
전 화 : 031) 632-1357	031) 631-1911
팩 스 : 031) 633-0850	031) 631-1922
이메일 : echnw@hanmail.net	igh2005@hanmail.net
홈페이지 : <a href="http://hannawon.or.kr">http://hannawon.or.kr</a>	

사진위원 : 김성보, 김중용  
편집위원 : 오은숙, 이정환, 한동원, 안태자

## 여름을 시원하게

원장 박양조

많은 사람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하  
여 산과 바다를 찾아 갑니다. 그러나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이 막혀 차에서 고생을 하고, 매연으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부채질을 하거나 정자에  
앉아서 친구들과 어울리면 일석 삼조의 피서를 할  
수 있습니다.

2

### 원장 글

원장 취임사

3

### 행사

경기도청 주최 '어르신 초청 위안잔치'

4

### 나들이

서울 나들이

5

### 이벤트

어르신들의 영양보충 만점 '가든파티'

6

### 축제

도자기 축제를 다녀와서

7

### 방문공연

신판 미당극 춘향전

8

### 좋은 이웃

한나요양원과 그린힐을 방문해주신 고마운 분들

10

### 도움의 손길

사랑과 나눔(2009년 3월 ~ 2009년 5월)

12

### 직원 글

한나그린힐에서 근무를 하면서

13

### 직원교육

노인자살 예방교육

14

### 봉사의 손길

한나요양원과 그린힐을 위해

16

### 실습생 글

사회복지사 실습과정을 마치고



## 원장 취임사



한나요양원 원장 한동숙

오늘 부족한 제가 원장의 자리에 앉게 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한나요양원은 1985년에 무료 양로시설로 개원하여 24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의 지도와 박양조 원장님의 탁월한 운영능력으로 지금의 한나요양원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1994년에 요양시설을 3층에 증축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생활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양로시설을 요양시설로 개축 통합하여 노인요양 시설로 전환하여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한나요양원의 오늘이 있도록 함께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어 노인복지 시설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 다른 미래와 제2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에 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 저를 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의 뜻을 받들고, 우리 한나요양원의 가족들이 바라는 일을 헤아려 정성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나원 가족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개인이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심기일전의 자세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나요양원의 미래를 위해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어르신들을 중심에 두고 각자의 역할을 해내도록 지혜와 정성을 다 합시다. 이러한 일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한나요양원의 발전과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경기도청 주최 **어르신 초청 위안잔치**

한나요양원 사회복지사 안태자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경기도에서 주최하고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어르신 초청 위안잔치”를 개최하여 우리어르신들을 초청해 위로해주셨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서 수원 도지사관에서 행사하던 것을 올해는 특별히 지역 어르신들을 생각하여 이천도자기 축제장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장 입구에 “아버님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라는 글귀를 보고 도지사님께서 어르신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예쁘게 풍선으로 장식을 하고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직원들이 나와서 우리 어르신들을 공손히 맞이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식순에 의해 도지사님의 인사말씀과 격려사가 있었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 회장이신 이준하 회장님,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 회장인 김경한 회장님의 답례인사가 진행되었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행사를 진행하는 진행요원들이 어머니마음의 합창에 어르신들 가슴에 감동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맛깔스럽게 차려진 오찬에 어르신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도지사님과 한분한분 사진촬영을 하고 체어에 의존하고 계신어르신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사진촬영과 악수를 하시는 모습이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념품과 도자기박물관 티켓까지 챙겨주시며 관람하고 가시라고 안내해주시는 배려하는 마음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도지사님과 찍은 사진을 한 분 한 분 어르신들께 보내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은 더욱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해하셨습니다.



## 서울 나들이

한나그린힐 복지과장 한동원

4월 중순 아침 어르신들과 직원들은 들뜬 마음으로 서울을 향해 차에 올라탔다.

첫 목적지는 서울 남산식물원 이었다. 남산은 서울의 상징적인 명산으로 많은 서울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곳이며 외지인들도 관광으로 찾는 곳이다. 우리 일행 어르신 15분과 직원 5명이 도착하여 먼저 야외식물원을 구경을 하였다. 약간 언덕이 있어서 많은 곳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약 1시간 가량 서울 시내를 둘러볼 수 있는 곳에서 예쁜 꽃과 나무를 보며 어르신들과 함께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옥마을이었다. 옛 전통 한옥을 서울시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외국인과 외부인들을 위하여 만든 곳으로 우리나라의 한옥을 잘 나타낸 곳이었다.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여 넓은 곳을 다니시지는 못하셨지만 우리전통 한옥을 직접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서 매우 흐뭇해 하셨다. 점심은 한식으로 국밥, 비빔밥, 파전 등을 드셨고 남산타워에 가려고 하였으나 걷는 길이 멀어

서 북악 스카이웨이로 코스를 잡았고 그곳에서 서울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우리 모두는 감탄을 자아냈다.

돌아오는 길에는 대통령이 사시는 청와대 앞길을 지나서 우리나라 국보1호인 남대문 앞으로 지나갔는데 불에 타서 보수공사중인 모습을 보고 어르신 몇 분은 가슴이 아프시다고 하셨다. 빨리 공사를 마쳐서 옛 모습으로 복원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천에 도착해서는 저녁식사로 추어탕과 감자탕을 드시며 오늘 하루 서울나들이를 되돌아보았다. 이렇게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그린힐에 돌아왔고 다음에는 더 좋은 관광지로 어르신을 모시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어르신들의 영양보충 만점 ‘가든파티’

한나요양원 사무국장 하영호

평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회복과 심리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어르신들의 특성상 실내에서의 활동만으로는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욕구들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답해하시던 어르신들의 마음을 풀어드리며 몸에 좋은 영양을 보충하기에 좋은 “야외 가든파티”로 어르신들의 기분전환의 시간이 준비 되었습니다.

한나요양원과 한나그린힐 어르신들을 함께 모시고 요양원의 등나무 에서 열린 가든파티 순서는 박양조 목사님의 사회와 강옥수 전도사님의 기도 및 류승범 목사님(한나요양원 간호과장)의 설교(“노년의 행복한 인생”)와 직원들의 찬양을 들려주는 시간으로 1부 예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후 맛난 식사시간에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오리고기, 돼지고기, 양념오징어, 떡, 수박, 음료 등 다양한 먹거리로 준비 되었는데 고기는 숯불을 이용하여 뽀얀 연기와 열기를 뽐으며 굽기 바쁘게 어르신들 입속으로 빨리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실 때에 어디선가 휴대용 확성기를 어깨에 메고 나타나신 박양조 목사님의 진행으로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송청운 어르신의 멋들어진 옛 노래 가락이 흘러나오고 새로 부임한 사무국장의 답가로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의 웃음 꽃 피는 아름다운 가든파티를 지켜보며 흐뭇함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준비를 하신 직원 분들과 참석하지 못하시고 방에서 맛난 고기를 드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길 기원합니다.



## 도자기 축제를 다녀와서

그린힐 물리치료사 장경자

싱그러운 5월의 따뜻하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날! 우리어르신 20여분과 직원들이 이천에서 가장 큰 도자기 축제를 다녀왔다. 설봉공원에 도착해서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천도자기 축제의 마스코트인 토야가 우리 어르신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形形色색의 예쁜 도자기들이 도처에 전시되어 있고 판매를 위한 생활 도자기부터 작품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자기들이 많이 있었다. 전통 도자기, 아기자기한 소품들, 약세사리, 쓰기에도 아까운 그릇들이 모두 흠으로 만들었다니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었다. 이렇게 예쁜 도자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고운 빛깔을 낼 수 있을까? 몇 십 년 오로지 흠으로 빛어낸 인생을 걸어갔을 장인들의 땀방울을 생각하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깊은 감동이 밀려왔다.



전시관 구경을 마치고 광장 한가운데서 전통 떡 만들기 체험이 있었다. 우리 여선생님 한분과 실습 남자 선생님 한 분이 떡 메를 치는데 열 장사 저리가라, 열 장정 안 부러울 정도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셨다. 그 덕분에 인절미를 많이 얻어 우리 어르신들과 맛있게 나눠드시고 옛날 생각도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화창한 날씨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은은한 도자기의 매력을 듬뿍 느끼고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다음해를 기약하며 원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았고 어르신들을 너무나도 잘 보살펴 주셨던 요양보호사 실습생 선생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신 선생님 모두 좋은 만남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합니다. 우리 어르신 모두를”



## 신판 마당극 **춘향전**

한나요양원 요양보호사팀장 오은숙

지난 4월 극단 개벽에서 “2009 경기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경기도 순회공연 중 우리 한나요양원을 방문하여 공연을 해주셨다.

극단 한원식 대표는 순회공연작인 마당극 “신판 춘향전”은 전통 고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춘향전을 새롭게 각색하여 마당놀이 형태로 접목시켜, 웃음과 해학의 장으로 만들어 우리 전통문화의 향수와 연극문화예술의 향유를 전달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작품이라고 한다.



공연 3시간 전 부터 오셔서 무대와 음향 장치를 하고 분장을 한 후 공연을 시작했는데 무대와 장소가 넓지 않아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단원들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어르신들을 위해 공연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춘향전은 누구나 아는 내용이라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하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단원과 어르신들이 하나로 호호하고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과 말로만 듣던 마당놀이를 가까이서 직접 보니까 정말 흥겹고 즐거웠다.

무료한 일상에 찾아와 우리 어르신들께 생동감이 넘치는 좋은 공연을 보여주신 극단개벽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를 전달하는 극단이 되길 기원합니다.

### 한나그린힐 현황

입주자 현황 (5월 31일 현재)	계	할아버지	할머니	입주자	퇴소자
	54명	13명	41명	6명	1명

직원 현황 (5월 31일 현재)	계	원장	사무국장	복지과장	축탁의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28	1	1	1	1	1	2	1	20

## 한나요양원과 그린힐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



### ◀ 3월 10일 건강보험공단 이천시장님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시사 형성윤지사장님께서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로해주셨습니다.

### ▶ 4월 19일 사동교회 방문

사동교회에서 홀몸 찬양단이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몸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 4월 28일 이천시 정신보건센터 방문

이천시 정신보건센터 원생들이 오셔서 어르신들과 신나는 노래와 춤을 추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 4월 29일 **대월면 한마음효도 큰 잔치**  
 대월면에서 주관하고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대월면 효도잔치에 우리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여러 가지 공연과 맛있고 푸짐한 식사를 대접 받았습니다

▶ 5월 8일 **월포교회 방문**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월포 교회에서 방문하여 인형극으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 5월 15일 **한국영상자료원 방문**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방문하여 60년대 한국 영화 '마부'를 보여 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옛날을 회상하시며 영화를 감상 하셨습니다.

▶ 5월 27일 **신애교회 방문**  
 서울에 있는 신애교회에서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 사랑과 나눔

(2009년 3월 ~ 2009년 5월)

♥ 따뜻하고 아름다운

## 【후원금】

- 개인 -

**한나요양원** : 박인식(3회), 박하서(3회), 차관영(3회), 김은하(3회), 정하국(2회), 구창모(2회), 민병준(2회), 김공이(2회), 김갑순(3회), 김정숙(3회), 신연옥(3회), 손희라(3회), 경효수(3회), 김덕수(3회), 박영옥(3회), 이옥화(3회), 최애심(3회), 임회환(3회), 이한섭(3회), 이은옥(3회), 전주인(3회), 이미선(3회), 오은숙(3회), 김영자(3회), 안태자(3회), 조미자(3회), 이정분(3회), 한동숙(4회), 김슬람미(3회), 조재호(2회), 서금숙, 김영탁, 장종수, 장석기, 최영환, 노동완, 이열효, 김복옥, 장영숙, 이복심, 김연예, 박양조(4회)

**그린힐** : 평북노회 남시찰회, 대학약국, 한동숙, 김구자(3회), 김미숙(3회), 김수익(3회), 김은수(3회), 김인화(4회), 김효진(2회), 박덕자(3회), 박소연(3회), 박양조(3회), 박은영(3회), 오옥화(4회), 이찬호(2회), 전주인(3회), 조복남(3회), 조세형(3회), 주연화(4회), 한동원(4회), 한정현(4회), 허혁(2회)

- 단체 -

**한나요양원** : 평광교회(3회), 평북사회부(2회), 과천교회(3회), 대한예수교장로회(3회), (주) 씨뿌리는사람(3회), 새이천약국(2회), 한국필름(2회), 한국광물자원공사, 신애교회, 대학약국, 벨엘의집, 중부신학교, 야채총판매장, 대월농협, 이천정육점, 창강요양원, 이마트단체지

## 【지로후원】

한나요양원 : 한국내과(3), 김창운, 박병숙, 이규원, 김병혁, 김유항

## 【후원물품】

**한나요양원** : 정영록 대표이사, 정승준 이사, 이만순, 신헌수지회(2회), 사동교회, 새이천약국, 이천영광교회, 하이닉스(강혜진 외), 대학약국, 정완진, 여운하, 박상준, 농협중앙회 이천지부, 신하교회, 유문수, 김춘식, 김은숙, 장은정, 류승범, 한국광물 자원공사, 서길원, 신애교회, 박영길

**그린힐** : 여주요양병원, 류오례, 김인수, 신영분(2회), 김상남, 박은수

# 정성과 보람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

## 【자원봉사】

**한나요양원** : 대월 교회찬양단, 영광 교회(목욕봉사), 중앙교회(목욕봉사), 관고동부녀회(목욕봉사), 호스피스(목욕봉사), 대월사랑회(목욕봉사), (주)하이닉스, (주)대상, 전통약손, 신희수지회, 조승우헤어, 초향교회(목욕봉사), 이천고RCY, 효양중RCY, 대월중, 효양고, 효양중, 키와니스클럽(목욕봉사), 강인숙(종이접기), 수원침례교회, 장평리교회(목욕봉사), 이천영광교회(찬양), 설봉적십자, 문영목, 이선혜, 장재금, 이희자, 사동교회(찬양), 한국영상자료원, 백사초등학교

**그린힐** : 평광교회(목욕봉사), 해방교회(목욕봉사), 시온성교회(목욕봉사, 이·미용, 수지침, 발마사지), 대성교회(목욕봉사), 중앙교회(목욕봉사), 이천정신보건센터(레크레이션-노래)

## 【요양보호사 실습】

**한나요양원** : 한나요양보호사교육원, 성모요양보호사교육원, 이천간호학원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 직원교육

#### 한나요양원

- 자원봉사 인증요원 양성교육 - 장형철, 김솔람미
- 전국노인복지시설 관리자 연수회 및 참가 - 한동숙
- 09년도 제 1차 이천시 지역협의회 개최 - 한동숙
- 경시협 사무국장 Woreshop - 한동숙, 오은숙
- 09년 전국노인복지시설 물리치료사 연수회-김덕수

#### 한나그린힐

- 09년 전국노인복지시설 물리치료사 연수회(2차) - 장경자

## 한나그린힐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나그린힐 영양보호사 박명은

한나그린힐!

이곳에서 나는 사회의 첫발을 내 뒀습니다.

첫 출근을 하던 날은 사실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떨리고 긴장해서 하루 종일 경직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건 내 자리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자리를 배정받고 앉을 때는 기대와 열심히 해보겠다는 다짐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근무를 시작하면서 내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어르신들과의 관계형성 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손녀나 다름없는 나이의 어린 내가 금방 신뢰감을 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아침에 인사를 드리고 어르신들의 얼굴과 성함을 열심히 외워둔 것이 도움이 되어 어르신들과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가끔 실수를 할 때면 호되게 호통을 치시며 혼내시기도 하시지만, 뒤돌아서서는 간식도 드시지 않고 가지고 오셔서 먹고 힘내서 일하라며 격려도 아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르신들과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7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배울게 더 많은 나에겐 짧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7개월은 나의 생활과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나그린힐은 내 첫 직장이자, 세상이 나에게 준 첫 번째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아서 기쁨도 있고 또! 이게 뭘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반면에는 원했던 것과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준 사람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설령 바라던 것과 거리감이 있을지라도 준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선물은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린힐은 나에게 선물입니다. 기쁨이 있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점도 있지만 그 안에서 소중한 웃음과 축복을 알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 노인자살 예방교육

하나그린힐 요양보호사 김종용

노인자살은 최근에 사회적 이슈 중의 하나로 자살예방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경기도 노인 종합센터 정봉숙 강사님이 한나요양원과 하나그린힐 직원을 대상으로 QPR 기법을 중심으로 한 강의는 모든 직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

## 1. QPR 기법

Q(Question-질문), P(Persuade-설득), R(Refer-의뢰)로써 자살의 징후가 보이는 대상자에게 질문하고 설득하면서 전문의나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유도(의뢰)하는 것이다.

## 2. QPR기법의 생존4단계

- 1) 경고신호를 빠르게 인지하라      2) QPR을 바르게 적용하라
- 3) 빠르게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라    4) 빠르게 평가와 전달을 하라

## 3. 자살 예방자(Gate Keeper)는

- 1) 자살의 요인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 2) 고통의 증상과 우울의 증상을 알 수 있어야 한다.
- 3) 자살 경고 신호를 알아 볼수 있어야 한다.
- 4)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어야 한다.

## 4. 자살에 대한 오류

- 1) 누구도 자살을 막을 수 없다.
- 2) 자살에 대한 언급은 그를 자극하는 것이다.
- 3) 자살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자살 계획을 비밀로 한다.
- 4) 자살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은 자살한다.
- 5) 일단 자살을 결심하면 아무도 못 말린다. 위의 내용은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 내용이다.

## 5. 자살에는 반드시 단서(경고)가 있다.

- 1) 직접 언어적 단서로 “나 죽기로 마음먹었어!”, “자살 할 거야”, “전부 정리해야지”, “만일 어떤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죽어 버릴 거야”
- 2) 간접 언어적 단서는 “나 너무 지쳤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짐만 되고 있어”, “내가 죽으면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이제 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이외에도 자살의 징후로 아끼던 물건을 남에게 주거나 갑자기 종교에 심취하고 분노의 표출을 하며 농약이나 약물을 모은다. 또한 자살의 동기로는 경제적 어려움,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심각한 병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등이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징후가 보이면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비밀이 보장되는 조용한 곳에서 질문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본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청과 관심이다.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설득할 때 상대방에게 이제는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를 도우려고 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하고, ‘나는 당신이 살았으면 합니다.’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도움을 청하려 할까요?’, ‘어르신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될까요?’ 등으로 설득하고 잘 안될 때는 형제, 가족, 친구, 목사님 등에게 부탁(의뢰)한다.

끝으로 자살을 하려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안전 동의서”를 받아라.-“나 000는 앞으로 자살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자살 생각이 들면 000에게 연락을 할 것이다”-이것을 쓰면 자살에 대한 생각이 없어진다. 이상과 같이 QPR을 적용할 때 희망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 한나요양원과 그린힐을 위해



◀서울시 의사협회 회장이신 문영목 원장님은 매년 5월이면 한나원을 방문하여 우리 어르신들께 관절주사를 놔 드리고 있습니다.

▶대월교회 찬양단이 매달 첫째 주 주일, 방문하여 준비찬양과 특송을 부르며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찬양예배를 드립니다.



◀이천시온성교회 봉사단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 하시도록 수지침 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 봉사해 주신 고마운 분들



◀백사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요양원 어르신들께 노래와 장기 자랑을 보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천시온성교회봉사단이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너무 즐거워 하셨습니다.



◀사동교회 청년들이 어르신들께 정성스럽게 발맞사지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한나요양원 현황

입주자 (5월 31일 현재)	계	할아버지	할머니	입주자	퇴소자
	79명	15명	64명	1명	1명

직 원 (5월 31일 현재)	계	원장	총무	생활복지사	촉탁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위생원
	29	1	1	1	1	3	1	1	17	2	1



## 사회복지사 실습과정을 마치고...

김유환(여주대)



실습 가던 첫날 한나원에 들어서는 입구는 아담하면서도 잘 정돈된 건물에 앞뒤가 탁 트인 전망이 참 시원하면서도 목가적인 풍경이 참 인상적으로 아름다웠다. 자동문으로 된 입구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하였고, 전체적으로 쾌적한 환경의 첫 느낌은 가정집에서와 같은 푸근함이 배어져 있는 듯 했다.

응접실에 앉아 담소를 나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셨는데 어찌나 표정들이 밝으시던지 이곳의 좋은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 같았다. 또한 이곳의 하루는 예배로 시작하며 여러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어서 다른 요양시설에서도 그런 시설운영의 사례들을 본

보기로써 많이 배워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기대감과 설렘 그리고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으로 전날의 잠도 설치며 시작한 실습이었지만 하루하루 과정을 겪어가면서 어르신들과도 친밀감이 쌓여갔고 직원 분들과도 정이 들어 가면서 식구처럼 잘 대해주셨다.

실습 기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상담이었는데 어르신들의 유년시절에서 청년시절과 장년기를 거쳐 이곳에 오기까지의 개개인별 인생역정을 들으면서 어려웠던 시절을 보내오신 그 과정만큼이나 사연도, 삶의 굴곡도 참으로 다양하고 눈물겨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부모님들의 세대가 이제는 노후만큼은 더 이상 고생이 없이 보살핌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도 알게 되는 계기의 실습과정이었다. 지금 부모세대의 노후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세대들이 부양해야 할 것이며 가장 최측근에서 접촉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로서는 이러한 부모세대의 고통과 고민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이해하면서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얼마 전에 EBS에서 시청한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것이 생각이 난다. 기억이 나는 것으로는 상대방의 얘기를 단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이 점차 열려가는 과정을 보면서 사회복지사 실습과정 중 상담프로그램이 힘들게 살아오신 노인 분들의 지나온 인생들을 인정하고 경청하는 것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가운데에서도 어찌면 그 분들이 원하고 필요한, 누군가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안도감에 의한 인간감정의 교류. 이것이 가장 절실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끝으로 한나원에서의 모든 실습을 마치고 나서 그 동안 부족한 저를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슈퍼바이저 선생님과 요양원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짧은 기간에도 정이 들어 언제 다시 올거냐시며 손을 잡아주셨던 어르신들이 무척 보고 싶어질 것이다.



복음과 역사의 향기

“진짜 박물관 보러 오세요”



특별기획전시 절찬리 연장!  
푸른 눈에 비친 백의 민족

- 개관 : 오전 10시-오후5시(주일은 쉼)
- 관람 : 무료



THE KOREA CHURCH HISTORY MUSEUM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저리 474-2  
Tel : 031-632-1391, 1392(Fax)  
www.kchmuseum.org

## ♥ 입주 및 후원을 안내합니다 ♥

후원물품 : 생활용품 및 음식물

후원금 : 농협 233071-55-000078

(이천한나원-한나요양원)

농협 233071-55-001294

(이천한나원-한나그린힐)

지로번호 7612035

입주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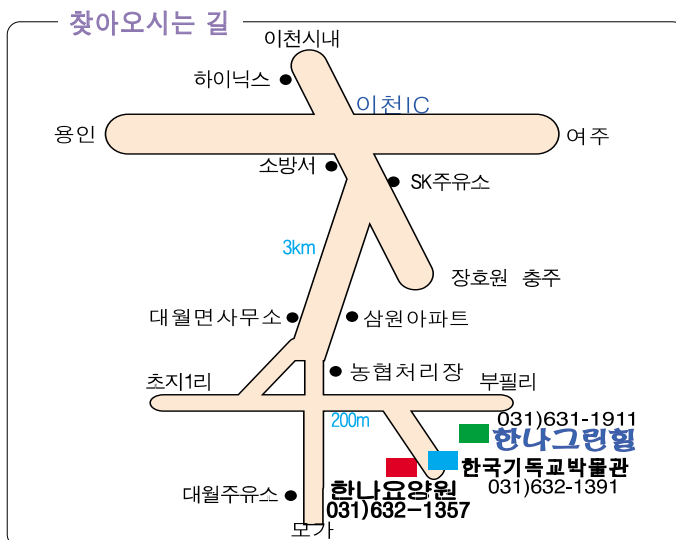
장기요양인정등급판정 1, 2등급 받은 어르신



### 제7경 안흥지 애련정

이천 미란다 호텔 주변의 연못 안흥지에 있는 애련정은  
세조 12년(1466년) 부사 이세보가 중건, 영의정 신숙주에게 부탁하여 애련  
정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1998년 12월 이천시에서 복원했는데, 애련정은 안흥지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 이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초지리행 버스 탑승.  
매 시각 정시, 30분에 운행(소요시간 약 30분)